



베트남

차기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의 방향

베트남은 1986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도이머이 정책(刷新政策)을 채택한 이후 그 실천계획으로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5개년 계획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10개년 개발계획은 지난 2002년 제9차 전국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는 전반기인 2001~2005년을 시행기간으로 하는 제7차 사회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¹⁾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04년 초부터 후반기인 2006~2010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여 현재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며, 정부 각 부처와 의회, 베트남 원조제공국들과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의견 조율 과정 중요시돼

베트남 정부는 차기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각 산업 관계자, 인접국, 베트남 원조에 참여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경제개발계획 추진 경험을 듣기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원조제공국들의 지원으로 각 부처와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베트남은 각 원조 기구들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원조전략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기 이전에 먼저 시행되는 '시범 국가(pilot country)'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조제공 기구 및 국가로 이루어진 working group과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과 대화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일본²⁾과 같은 주요 원조제공국들 역시 베트남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양국의 이익

1) 제7차 사회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응호, "베트남의 2001~2005년 경제개발계획'

〈표〉 2006~2010년 사회경제발전계획 목표

달성 목표	지표	비고
GDP 성장률 - 농수산업 - 산업, 건설업 - 서비스업	7.5-8%(7.5%) 3.0-3.2%(4.3%) 10-10.2%(10.8%) 7.7-8.2%(6.2%)	연평균
수출성장률	14-16% (14-16%)	연평균
일자리 신규 창출(5년 합계)	8백만 명(7.5백만 명)	
직업훈련 인원(5년 합계)	7,5백만 명	
1세 이하 영아 사망률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20% 미만 27% 미만	2010년 까지
숙련노동자 비율	40% 이상(30%)	2010년 까지
빈곤가구 비율	15-16%	국제빈곤기준에 따라, 2010년까지
숲 조성 비율	43% 이상	2010년 까지
도시 가구 상수도 보급률 농어촌 가구 상수도 보급률	95% 까지 85% 까지(60%)	2010년 까지

주: 괄호 안은 2001~2005년 경제개발계획 목표치임
자료: 필자 작성

증진을 위해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경제사회개발계획에는 처음으로 CPRGS³⁾의 내용이 반영된다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이는 향후 베트남의 경제사회개발계획이 CPRGS는 물론 각 원조국과 원조기구의 대 베트남 원조전략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게 될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경제사회개발계획 초안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워크샵 등을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인 정부 내 의견조율을 거친 뒤 내년 초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기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주요 내용

새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성,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조화로운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기아극복과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성장, 인종문제, 양성평등, 청소년 개발 문제 등은 새 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된 항목들이다.

농업과 농어촌 부문에서는 농업생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농업부문 효율 증가를 위한 구조조정 단행으로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업 부문에서는 국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1) “국회 추진성과와 과제”,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5.7” 참조.
2) ‘Japan-Vietnam Joint Initiative Action Plan’이란 협력프로그램 운영.
3)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세계은행의 PRSP(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의 베트남 버전임. 세계은행을 비롯한 몇몇 다자간 공여 기구들은 CPRGS에 근거해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을 위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WTO 가입과 ASEAN 내 서비스자유화 약정에 따른 서비스수준 향상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과 훈련의 질 향상, 환경 보존, 빈곤 감소, 국민 보건 수준 향상 등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연평균 7.5~8%의 GDP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의 목표로 설정된 ICOR⁴⁾ 수준은 지난 5년간의 35%에서 37~38%로 상향되었다. 2005년 가격기준으로 5년간 총 투자액은 1,170억~1,240억 달러가 목표이며, 이는 투자가 연평균 8% 정도 증가할 때 도달 가능한 수준이다.

사회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목표로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법적 환경 마련, 거시경제 안정과 기업환경 향상을 위한 통화금융정책 실행, 사회주의제도의 기반에 시장경제체제의 조화로운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의 협력 필요

베트남 정부는 차기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기존의 성장일변도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성장의 질과 조화로운 개발을 중시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대해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 국가와 기관, 기업 등은 대 베트남 진출전략을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이 추구하는 개발목표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이미 수립한 계획을 참고할 뿐 아니라 계획수립 작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베트남 정부는 차기 사회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국내외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이나 ADB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일본과 같은 양자간 원조제공국들 역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활발하게 참여하여 자국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해당 기구나 국가에도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개발 경험이 일천한 베트남이 선진국의 경험을 전수 받아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국이며 원조 수혜국가로서 베트남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적극 참여하여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양 동 철】

4) 한계자본계수 :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